

청소년들의 사회적 풍토에 관한 도·농간 차이 연구

구병두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A Comparative Study on the Social Climates of Urban-Rural Adolescence

Ku, Byung-Doo

Kyungw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적  요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 그들 나름대로 형성하고 있는 문화, 즉 사회적 풍토(외모, 옷, 인기, 여가선용, 취미생활, 인터넷, 폭력, 성, 왕따, 음주, 흡연)는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풍토는 도시 청소년과 농촌지역 청소년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적 풍토는 그들의 배경변인(성별, 학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구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관련된 문헌을 참고하여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다음 청소년들의 사회적 풍토(청소년 문화)는 도·농간, 학교풍토, 성별, 학년(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사회적 풍토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영역에 대한 도·농간의 인식도 차이는 없었으며, 학교풍토에 따른 청소년들의 외모+옷+인기, 폭력+왕따+성, 흡연 등의 하위영역에서는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여가선용+취미생활, 인터넷, 음주 등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외모+옷+인기, 폭력+왕따+성, 음주+흡연 등의 하위영역에서는 $p=0.05$ 수준 내지는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여가선용+취미생활, 인터넷 등의 하위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의 학년(연령)에 따른 외모+옷+인기, 여가선용+취미생활 등의 하위영역에서는 각각 $p=0.001$ 수준 내지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터넷, 폭력+왕따+성, 음주+흡연 등의 하위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I. 서론

1. 문제의 제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교육의 기회확대와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청소년기는 한층 길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전통사회에서는 일찍이 찾아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오늘날 청소년들에게는 심각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은 한낱 인생의 과도기적인 것으로 치부한다고 본다.

또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환경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전통적 가치관이 약화되고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생활 양식, 가치관 태도 등을 가지고 있다. 문화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기 때문에 문화란 영구불변 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

라서 변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한 때는 가장 가치 있고 유행하던 그들의 문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시대의 변천에 따른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심각하리 만큼 가치관의 확립에 있어서 나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 온 문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가치관의 확립이 불확실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자체가 쉽게 동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들의 행동양식에 관하여 기성세대들은 그들의 주류문화에 대해 반항과 분노의 표현정도로 밖에 인식하지 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처럼 전통적인 주류문화를 지키려는 기성세대와 그들이 보기에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청소년세대로 향시 반대적인 개념처럼 인식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돌리는 것이 기성세대의 전통적인 가치나 규범을 유지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물론 위의 견해가 지배적인 것이긴 하지만 청소년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를 기성세대의 주류문화의 부분적인 하위문화로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에 들어와 인터넷 보급과 활용의 증대로 인한 부작용으로 심각하리 만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풍토(청소년 문화)의 양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성세대와는 달리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가치관, 생활양식, 태도 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풍토는 농촌지역 학생들과 도시 청소년들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구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 그들 나름대로 형성하고 있는 문화, 즉 사회적 풍토(외모, 옷, 인기, 여가선용, 취미생활, 인터넷, 폭력, 성, 왕따, 음주, 흡연)는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풍토는 도시 청소년과 농촌지역 청소년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적 풍토는 그들의 배경변인(성별, 학년)에 따라서 어떠

한 차이가 있는가를 구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가 수행됨으로서 얻게 될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문화의 특성을 알아냄으로써 기성세대의 주류문화와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세대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도·농간 및 학교의 풍토에 따른 청소년들의 사회적 풍토의 차이를 밝혀냄으로써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들을 둘러쌓고 있는 주변 환경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일익을 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하여 제작될 청소년 문화에 관한 측정도구는 이 분야의 학문발전에 미미하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 3개의 고등학교 학생을 표집대상으로 국한하였으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모든 청소년의 경우에 확대하여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다소의 무리가 따를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라 함은 근로 청소년, 소년원 청소년, 학교 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들을 포함시키지만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은 학교 청소년, 즉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에게만 한정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풍토, 즉 청소년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영역은 외모+옷+인기, 여가+취미생활, 인터넷, 폭력+왕따+성, 음주+흡연 등 5개 영역으로 한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문화와 청년문화란 용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하였다. 청소년은 사회활동을 통해서 성인으로 변화 성장해 가면서 사회의 필요한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테면 이성교제 대상의 선택이라든지, 상급학교 진학문제, 취업과 관련된 문제 등과 같이 경험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즐비하므로 청소년기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청소년은 시춘기에서 성인에 이르는 과도기 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Coleman, 1961). 또한 개인적 혼란으로부터 사회적 질서로 옮겨가는 새로운 삶의 단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로 보기도 한다(Keniston, 1967). 그리고 청소년이란 세대는 단순한 연령층으로서의 청소년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한층 더 부각되고 새롭게 탄생한 세대로 이들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현대문명의 출현과 그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동에서 비롯된 것이다(Keniston, 1967). 이러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형성했던 자아의식과 현재의 자아의식의 연속성과 동질성에서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됨으로써 새로운 자아의식을 형성해야 할 소위 새롭게 요구되는 발달 과정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과 인간관계는 자칫하면 자아 또는 정체의식의 형성에 혼란을 초래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체위기애 빠뜨리게 한다(Erikson, 1968). 청소년들은 그들이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특정 지어 지게 될 여러 가지 태도라든지, 가치, 사고방식, 욕구성향 및 그 외의 개인적 속성을 사회에서 획득하게 된다(양춘, 1985).

한편 Erikson(1968)은 청년기를 “자신에 대한 새로운 탐색기”로 보았으며, 청년기를 일생의 발전과정의 하나로 본 Hall은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정의하고 청소년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반항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필요하며 모든 인류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Bandura(1977)는 청소년들이 반드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겪어야 할 필요도 없으며 어른들이 청년들의 반항적으로 보이는 행동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여튼 청소년기는 모든 사람에게 질풍노도의 시기는 아니지만 자신의 정체를 추구하는 시기인 것만은 확실

하다 하겠다.

Hurock(1974)는 청소년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해당하는 청년 중기는 성인의 행동을 닮으려고 하여 남이 보기에는 전방지고 거만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그러나 자아의식이 강하게 발달하고 성적 감정 또한 급격히 발달하여 ‘풋사랑’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함종환(1982)은 청소년기는 자아의식과 분열된 존재의 시기이며 소외, 외로움, 혼동의 감정이 수반되는 시기로 보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행동은 일관성이 없으며 예측이 불가능하고 상반적인 갈등 속에서 지내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체감과 자기에 대한 정의를 된다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기는 격동하는 심리의 변화와 극단적인 행동의 표현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정서적 불안정감이라는 불안정한 측면도 있지만 자아성립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것이다.

2. 청소년의 문화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문화(adolescent culture)와 청년문화(youth culture)란 용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하였다. 청소년은 사회활동을 통해서 성인으로 변화 성장해 가면서 사회의 필요한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테면 이성교제 대상의 선택이라든지 상급학교 진학문제, 취업과 관련된 문제 등과 같이 경험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즐비하므로 청소년기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대사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선택 향위는 청소년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그들은 가정환경 요인보다는 동료집단(peer group)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Schwartz, 1967). 이는 동료집단이 부모에 대한 추종관계가 아닌, 적어도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상호보존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들의 중대사는 부모보다는 친구와 논의하게 된다고 보여진다.

Parsons(1954)는 청년문화의 한 특징이 쾌락추구주의라는 것을 간파하였다. 즉, 청소년은 무책임한 행동과 혼돈된 오늘만이 존재한다는 식의 사고와 행동을

취하며 또한 지나친 육체적 우월성과 과시욕 등이 있으며 젊은 여성의 경우는 글래머 걸의 성적 매력을 추구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인상은 청소년들의 그들 또래의 기준규범에 강제적으로 동조하며 성의 기준규범을 거부하는 하는 동시에 정치적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는 데서 비롯된 듯하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양상은 Coleman이 일리노이주의 1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청년문화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그의 청년문화에 대한 주요 특색은 지위와 인기에 대한 추구인데 학업성적은 이러한 추구와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남학생은 자동차 드라이브와 스포츠를 좋아하고, 여학생은 성적 매력을 중시한다. 학업성이 그들의 주요 가치관이 아니라 단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부모의 압력이지 그들이 이것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클활동, 운동시합, 육체적 매력 등은 자기들 자신이 강하게 내세우는 가치이다. 그들은 부모보다 동료의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런데 Coleman은 반지성적인 청년문화가 학교라는 집단의 연대성을 강화시켜주는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학교의 명성을 높이고 학교사회의 통합을 높이는 각종 과외활동 특히 운동경기는 이러한 통합기능으로 인해 그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학업성적은 개인문제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한완상, 1973).

이처럼 청년문화의 특징을 폐락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많은 대중매체에 의해 오랫동안 선전되어온 청년들의 장난기 있고 매력적인 상과 부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친구들과의 전화통화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든지, 자동차를 타고 미친 듯이 돌아다닌다든지, 의식적으로 소비생활을 하려 한다든지, 기성세대의 비난을 무시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 기밀학습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든지 하는 따위의 모습은 사실 많은 청소년들의 특징적 단면이기도 하다(Coleman, 1961).

그러나 비단 청년문화에서만 폐락주의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Berger(1963)의 견해처럼 폐락주의는 비록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지는 몰라도 기성

세대의 대부분에 의해서도 공유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기성세대나 부모들은 그들의 폐락주의적인 욕구를 도박, 카드놀이, 남성적인 매력, 여성적인 성적매력, 성교, 의류선택, 명예추구 등에서 청소년폐락주의와 하등 다른 바 없는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청년문화의 폐락적인 행동특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이를 문제시하는 어른들의 청소년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Elkin과 Westley(1955)는 그들의 연구를 통해서 종류계층의 청소년들은 다른 계층의 청소년들에 비하여 성인들의 지도와 기대를 되도록 수용하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일시적인 폐락적 만족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약속된 의미 있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는 성인들의 견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청소년문화가 제멋대로라거나 무책임하며, 폐락적이라고 보는 것은 청년문화의 단면만을 본 결과라고 주장하며 청년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delson(1968)의 연구 결과 역시 Elkin 등과 같은 맥락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는 청소년기를 위기, 변동, 급격한 성격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는 예상과 청소년이 그들의 가정에서 떨어져 나와 자유성과 독립성을 찾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부모나 일반적인 권위와 상충을 면하지 못하게 되리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그의 가설과는 달리 청소년들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며, 갈등의 내용은 주로 규칙과 규제, 자동차, 개인의 모습 가꾸기, 의복, 화장품 등과 같은 것이며 부모의 권위나 보다 큰 사회체제의 규범이나 가치에 대한 것은 갈등의 정도가 미진하다는 것이다.

Friednberg(1959)는 청소년들이 성인문화를 자기만족적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그러한 행동을 허용하는 사회를 신랄하게 혹평하였다. Friednberg는 성격발달이 높은 문화도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여 단순한 동조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학교조직의 구조가 지나치게 관료적이어서 청소년이 명확히 자신의 정체감을 발달시키기도 전에 기성체제의 적응양상에 유도되고

강요되어 창의성 또는 사회성 발달을 오히려 저해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기는 성인들의 압력이나 책임의 강요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문화는 폐락주의와 당장의 일시적이고 폐락적인 만족보다는 미래에 약속된 의미 있는 만족을 추구하면서 일시적인 즐거움을 연기하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것으로 특성 지을 수 있다.

3. 청소년의 또래집단과 동조행동

동료집단(peer group)은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집단이 가족이나 학교, 다른 사회집단과 구별되는 이유는 비공식적인 결속집단으로 동등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협동과 관용, 분담과 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방희덕). Cosronzo와 Shaw (1966)는 청소년들이 또래집단의 행동이나 기대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은 남녀 모두 사춘기 이전이나 이후보다 사춘기에 더욱 동조를 많이 한다고 밝혔다(이춘제 외, 1988). 또한 그들은 부모보다 자신과 가까운 동료들의 영향에 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

청소년 또래집단 내에서 인기도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 이후 계속되어 왔다. 또래집단은 우선 짹페(cliques)와 대집단(crowd)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짹페는 2~9명(대개 3~4명) 정도로 구성된 경우인데 타 집단에 대해 폐쇄적이며 이들은 학교생활, 과외활동, 취미클럽, 스포츠 등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모여 활동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연령, 학년,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비슷하며 가치관, 흥미, 도덕적 기준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Coleman(1961)은 그의 조사연구에서 10개 중등학교에서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인기 있는 학생'으로 기억되기보다는 '훌륭한 운동선수'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들은 주로 대인관계를 원활히 조절할 수 있는 사고능력의 정도에 따라 인기도가 달라진다고 하였

다. 이는 Coleman의 독특한 주장이지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업성취는 그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부모의 압력 때문이지 학업성취 자체가 그들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서클활동, 운동시합, 육체적 매력 등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일탈행동 가운데 음주와 흡연에 관하여 살펴보면, 1991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전국의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가운데 흡연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6.8%, 음주의 경우는 34.8%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에 따른 흡연의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훨씬 높아서 여학생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또한 서일(1997)의 전국 남녀 중·고등학생 흡연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남고생의 흡연율은 35.3%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고생들의 흡연율은 8.1%로 밝혀졌는데, 이들의 흡연동기는 호기심,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동아일보, 1997. 8. 26).

한편 주왕기 등(1982)은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생의 음주 경험은 81.6%로 미국의 72.0%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경우는 법적으로 술과 담배를 구입할 연령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어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심웅철(1982)은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 경험 유무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남학생은 71.6%, 여학생은 32.1%로 남학생의 음주 경험에 비하여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 보였다. 또한 안순덕 등(1985)은 음주조사 결과 소년원생 88.2%, 학생 70.9%로 비행청소년이나 정상청소년의 대다수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흡연의 경우도 남학생은 60.2%정도 흡연의 경험이 있는데 이는 미국의 35.5%를 훨씬 앞서고 있다. 구병두 등(1994)의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적 풍토에 관 연구"에서 음주의 경우는 52.7%, 흡연의 경우는 27.7%가 가끔 또는 자주 마시고 피우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997)의 조사에 의하면 중·고생의 흡연 경험이 전체 응답자의 36.4%였으며, 중학생(31%)보다는 고등학생(41.1%)이 여학생(28.7%)보다

는 남학생(47.7%)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음주의 주된 원인은 성인과 유사하게 스트레스나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즐거움, 술맛 또는 분위기에 의해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동료집단의 권유에 적절히 거절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한 따돌림이 두려워서 혹은 호기심에 마시는 경우도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고성혜 등, 1997).

이처럼 연구들의 결과에 따라서 흡연율과 음주 경험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조사대상의 범위를 고교생들에게만 한정시켰느냐 아니면 중학생까지 포함시켰느냐의 차이에서 기인 된 것으로 보여진다.

III.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 그들 나름대로 형성하고 있는 문화, 즉 사회적 풍토(외모, 옷, 인기, 여가선용, 취미생활, 인터넷, 폭력, 성, 왕따, 음주, 흡연)는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풍토는 도시 청소년과 농촌지역 청소년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적 풍토는 그들의 배경변인(성별, 학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의 사회적 풍토(청소년문화)는 도·농간 청소년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들의 사회적 풍토는 학교풍토(school climate)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청소년들의 사회적 풍토는 그들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청소년들의 사회적 풍토는 그들의 연령(학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V.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경기도 지역에 소재해

있는 농업계 고등학생 1, 2, 3학년 남녀 189명 및 서울시에 소재해 있는 인문계 남자 고등학생 1, 2, 3학년 118명 그리고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 인문계 여자 고등학생 1, 2, 3학년 158명 등 445명을 하였다(회수율: 97.8%).

2. 검사의 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검사도구는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풍토에 관한 인지도”로써 이는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외모+옷+인기, 여가+취미생활, 인터넷, 폭력+왕따+성, 음주+흡연 등으로 총 5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50문항은 Likert type scale(등간척도)이며, 2개의 문항은 명명척도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참조).

3. 예비조사

이상의 제작된 질문지를 가지고 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 K고등학교 남녀 1, 2, 3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study)를 먼저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성격과 다소간의 거리가 있다고 판정되는 문항은 수정·보완하였다

4. 자료의 처리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Personal Computer용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에 의한 변량분석(ANOVA), t-test 및 X²(Chi-square) 통계방법을 적용하였다.

V. 결과 분석 및 해석

본 연구는 편의상 연구의 문제에 따라 크게 네 영역, 즉 도·농간 청소년간의 사회적 풍토(청소년문화)의 차이, 학교풍토(school climate)에 따른 청소년 문화의 차이, 성별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차이, 연령(학년)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차이 등을 검증하고자 한다.

1. 도·농간 청소년간의 사회적 풍토(청소년문화)의 차이

가. 청소년들의 외모, 옷, 인기에 대한 인식도는 도·농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도·농간 청소년들의 외모, 옷, 인기에 대한 인식도 차이검증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농촌	189	2,659	0.465	443	-0.89	0.3736
도시	256	2,700	0.500			

이상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t의 값은 -0.89로 이는 p=0.05수준에서 요구되는 1.960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 청소년들이 농촌 청소년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외모, 옷, 인기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 청소년들이 미미하게나마 농촌 청소년들에 비하여 외모, 옷, 인기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에 대한 인식도는 도·농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도·농간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에 대한 인식도 차이검증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농촌	189	2,847	0.474	443	-1.56	0.1185
도시	256	2,895	0.407			

이상의 표 2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실제로 얻어진 t의 값은 -1.56으로 이는 p=0.05수준에서 요구되는 1.960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 청소년들이 농촌 청소년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 청소년들이 미미하게나마 농촌 청소년들에 비하여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치부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대한 인식도는 도·농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도·농간 청소년들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도 차이검증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농촌	189	2,632	0.506	443	-1.28	0.1998
도시	256	2,678	0.475			

위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t의 값은 -1.28로 이는 p=0.05수준에서 요구되는 t의 값 1.9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 청소년들이 농촌 청소년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 청소년들이 농촌 청소년들에 비하여 인터넷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청소년들의 폭력, 왕따, 성에 대한 인식도는 도·농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도·농간 청소년들의 폭력, 왕따, 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검증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농촌	189	1,973	0.409	443	0.55	0.5806
도시	256	1,952	0.407			

이상의 표 4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실제로 얻어진 t의 값은 0.55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t의 값 1.96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촌 청소년들이 도시 청소년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폭력, 왕따, 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 청소년들이 도시 청소년들에 비하여 폭력, 왕따, 성 등이 미미하나마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인식도는 도·농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도·농간 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경험의 유무 차이 검증

구분	유무	예	아니오	계	비고
음주	농촌	140(74.9)	47(25.1)	187	$\chi^2=0.4334$ $df=1$ $p=0.5103$
	도시	197(77.6)	57(22.4)	254	
	계	337(76.4)	104(23.6)	441	
흡연	농촌	52(28.0)	134(72.0)	186	$\chi^2=2.0485$ $df=1$ $p=0.1509$
	도시	87(34.4)	166(65.6)	253	
	계	139(31.2)	300(68.8)	439	

이상의 표 5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각각 0.4334와 2.0485로 이들은 각각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3.84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위의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를 경험한 경우는 도시 청소년들(77.6%)이 농촌지역 청소년들(74.9%)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흡연을 경험한 경우에 있어서도 도시 청소년들이 34.4%의 흡연 유경험자로 나타난 반면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경우는 28%로 밝혀져 도시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농촌지역 청소년들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2. 학교풍토(school climate)에 따른 청소년 문화의 차이

가. 청소년들의 외모, 옷, 인기에 대한 인식도는 학교풍토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학교풍토에 따른 청소년들의 외모, 옷, 인기에 대한 인식도 차이검증

학교	풍토	N	평균	표준편차	F	P
농촌	공학	189	2.659	0.465	8.03	0.0004
도시	남고	118	2.574	0.496		
도시	여고	138	2.808	0.479		

위의 표 6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은 8.03으로 이는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4.60보다 훨씬 큰 것으로 밝혀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외모, 옷, 인기에 대한 인식도는 도시 여고, 농촌 공학, 도시 남고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하여 외모, 옷, 인기 등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에 대한 인식도는 학교풍토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학교풍토에 따른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에 대한 인식도 차이검증

학교	풍토	N	평균	표준편차	F	P
농촌	공학	189	2.779	0.475	1.34	0.2629
도시	남고	118	2.831	0.408		
도시	여고	138	2.857	0.408		

이상의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은 1.34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2.99보다 적은 것으로 밝혀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과 취미생활에 대한 인식도는 도시 여고, 도시 남고, 농촌 공학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뚜렷한 차이는 없지만 도시 여고와 도시 남고가 농촌 공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도시지역 청소년들이 농촌지역 청소년들에 비해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청소년들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도는 학교풍토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학교풍토에 따른 청소년들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도 차이검증

학교	풍토	N	평균	표준편차	F	P
농촌	공학	189	2.560	0.506	1.45	0.2360
도시	남고	118	2.657	0.465		
도시	여고	138	2.588	0.408		

이상의 표 8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은 1.45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2.99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도는 도시 남고, 도시 여고, 농촌 공학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뚜렷한 차이는 없지만 도시 여고와 도시 남고가 농촌 공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라. 청소년들의 폭력, 왕따, 성에 대한 인식도는 학교풍토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학교풍토에 따른 청소년들의 폭력, 왕따, 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검증

학교	풍토	N	평균	표준편차	F	P
농촌	공학	189	1.973	0.409	10.46	0.0001
도시	남고	118	2.074	0.427		
도시	여고	138	1.847	0.359		

위의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은 10.46으로 이는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4.60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폭력, 왕따, 성에 대한 인식도는 도시 남고, 농촌 공학, 도시 여고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 남고가 농촌 공학과 도시 여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폭력, 왕따, 성에 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문제는 도시 남고 학생이 농촌 공학과 도시 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리라 사료된다.

마.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인식도는 학교 풍토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학교풍토에 따른 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경험의 유무 차이검증

구분	유무	예	아니오	계	비고
음주	농촌공학	140(74.9)	47(25.1)	187	$\chi^2=5.0627$
	도시남고	98(93.8)	19(16.2)	117	$df=2$
	도시여고	99(72.3)	38(27.7)	137	$p=0.0795$
	계	337(76.4)	104(23.6)	441	
흡연	농촌공학	52(28.0)	134(72.0)	186	$\chi^2=47.1227$
	도시남고	65(55.6)	52(44.4)	117	$df=2$
	도시여고	22(16.2)	114(83.8)	136	$p=0.0001$
	계	139(31.2)	300(68.8)	439	

위의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음주경험의 유무의 경우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5.0627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5.991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흡연경험 유무의 경우는 실제로 얼어진 X^2 의 값은 47.1227로 이는 $p=0.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3.815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위의 사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를 경험한 경우는 도시 남고(83.8%), 농촌 공학(74.9%), 도시 여고(72.3%) 순으로 나타나 학교종토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흡연을 경험한 경우는 도시 남고(55.6%), 농촌 공학(28.8%), 도시 여고(16.2%) 순으로 음주를 경험한 경우와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종토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훨씬 큰 것으로 밝혀졌다.

3. 성별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차이

가. 청소년들의 외모, 옷, 인기에 대한 인식도는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외모, 옷, 인기에 대한 인식도 차이검증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남	214	2,578	0.482	443	-4.45	0.0001
여	231	2,779	0.469			

위의 표 11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실제로 얻어진 t의 값은 -4.45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3.291보다 훨씬 큰 것으로 밝혀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외모, 옷, 인기에 대한 인식도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남의 이목을 더 중시하고 자신의 외모 가꾸기나 옷이나 인기영향에 신경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나.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에 대한 인식도는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에 대한 인식도 차이검증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남	214	2.816	0.482	443	-0.03	0.9733
여	231	2.812	0.469			

이상의 표 12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실제로 얻어진 t의 값은 -0.03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1.96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에 대한 인식도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이 청소년들의 사회적 풍토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소년들의 성별에 상관없이 여가선용이나 취미생활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청소년들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도는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인터넷에 대한 인식도 차이검증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남	214	2.617	0.481	443	0.95	0.3418
여	231	2.573	0.496			

이상의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t의 값은 0.95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1.9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인터

넷에 대한 인식도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된 결과로 보여진다.

라. 청소년들의 폭력, 왕따, 성에 대한 인식도는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폭력, 왕따, 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검증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남	214	2.044	0.478	443	4.24	0.0001
여	231	1.883	0.383			

이상의 표 14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실제로 얻어진 t의 값은 4.24로 이는 p=0.001수준에서 요구되는 3.291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폭력, 왕따, 성에 대한 인식도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보다 더 공격적이고 보다 덜 협조적이며 즉흥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마.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인식도는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이상의 표 15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각각 5.8376과 44.5844로 이들은 각각 p=0.05수준과 p=0.001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3.841과 10.827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를 경험한 경우는 남학생들 (81.5%)이 여학생들(71.7%)보다 거의 10%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흡연을 경험한 경우에 있어서는 남학생들(47.1%)이 여

표 15.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음주 및 흡연 경험의 유무 차이검증

구분	유무	예	아니오	계	비고
음주	남	172(81.5)	39(18.5)	211	$\chi^2=5.8376$
	여	165(71.7)	65(28.3)	230	df=1 p=0.0157
	계	337(76.4)	104(23.6)	411	
흡연	남	99(47.1)	111(52.9)	210	$\chi^2=44.5844$
	여	40(17.5)	189(82.5)	229	df=1 p=0.0001
	계	139(31.2)	300(68.8)	439	

학생(17.5)보다 거의 30%정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음주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흡연을 경험한 청소년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 보인 것은 전통적으로 자녀들의 음주에 관해서는 보다 허용적인 어른들의 태도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4. 연령(학년)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차이

가. 청소년들의 외모, 옷, 인기에 대한 인식도는 학년(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청소년들의 학년에 따른 외모, 옷, 인기에 대한 인식도 차이검증

학년(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P
1학년	147	2.578	0.413	8.29	0.0003
2학년	140	2.662	0.496		
3학년	158	2.798	0.514		

위의 표 16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은 8.29로 이는 p=0.01수준에서 요구되는 4.60보다 훨씬 큰 것으로 밝혀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외모, 옷, 인기에 대한 인식도는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외모, 옷, 인기 등 멋을 부

리는 데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에 대한 인식도는 학년(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청소년들의 학년에 따른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에 대한 인식도 차이검증

학년(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P
1학년	147	2.787	0.409	1.07	0.3445
2학년	140	2.804	0.501		
3학년	158	2.857	0.403		

이상의 표 17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은 1.07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2.99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에 대한 인식도는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지만 학년이 높을수록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소년들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도는 학년(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청소년들의 학년에 따른 인터넷에 대한 인식도 차이검증

학년(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P
1학년	147	2.629	0.499	4.09	0.0174
2학년	140	2.656	0.549		
3학년	158	2.507	0.405		

이상의 표 18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은 4.09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2.99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도는 2학년, 1학년, 3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학년이 1학년과 2학년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3학년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느라 1학년과 2학년에 비하여 인터넷을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청소년들의 폭력, 왕따, 성에 대한 인식도는 학년(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청소년들의 학년에 따른 폭력, 왕따, 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검증

학년(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P
1학년	147	1.972	0.414	0.10	0.9039
2학년	140	1.959	0.402		
3학년	158	1.951	0.409		

위의 표 19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은 0.10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2.99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폭력, 왕따, 성에 대한 인식도는 1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나타나, 학년이 낮을수록 폭력, 왕따, 성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인식도는 학년(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20과 같다.

이상의 표 20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각각 4.5822와 1.4802로 이들은 각각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5.99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20. 청소년들의 학년(연령)에 따른 음주 및 흡연경험의 유무 차이검증

구분	유무	예	아니오	계	비고
음주	1학년	105(72.4)	40(27.6)	145	$\chi^2=4.5822$
	2학년	103(74.1)	36(25.9)	139	$df=2$
	3학년	129(82.2)	28(17.8)	157	$p=0.1012$
	계	337(76.4)	104(23.6)	441	
흡연	1학년	42(29.2)		210	$\chi^2=1.4802$
	2학년	42(30.2)	102(70.8)	229	$df=2$
	3학년	55(35.3)	189(82.5)		$p=0.4771$
	계	139(31.2)	300(68.8)	439	

위의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를 경험한 경우는 3학년(82.2%), 2학년(74.1%), 1학년(72.4%) 순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을 경험한 경우에 있어서도 3학년(35.3%), 2학년(30.2%), 1학년(29.2%) 순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주나 흡연을 경험한 학생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 그들 나름대로 형성하고 있는 문화, 즉 사회적 풍토(외모, 옷, 인기, 여가선용, 취미생활, 인터넷, 폭력, 성, 왕따, 음주, 흡연)는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풍토는 도시 청소년과 농촌지역 청소년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적 풍토는 그들의 배경변인(성별, 학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구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의 사회적 풍토(청소년문화)는 도·농간 청소년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들의 사회적 풍토는 학교풍토(school climate)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청소년들의 사회적 풍토는 그들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청소년들의 사회적 풍토는 그들의 연령(학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풍토에 관한 인지도”의 질문지이다.

이와 같이 제작된 질문지를 서로 학교풍토가 다른 경기도 지역에 소재해 있는 농업계 고등학생 1, 2, 3학년 남녀 189명 및 서울시에 소재해 있는 인문계 남자 고등학생 1, 2, 3학년 118명 그리고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 인문계 여자 고등학생 1, 2, 3학년 158명 등 445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Personal Computer용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에 의한 변량분석(ANOVA), t-test 및 χ^2 (Chi-square) 통계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들의 사회적 풍토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영역, 즉 외모+옷+인기, 여가+취미생활, 인터넷, 폭력+왕따+성, 음주+흡연 등에 관한 도·농간의 인식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미미하나마 도시 청소년들이 농촌 청소년들에 비하여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 학교풍토에 따른 청소년들의 문화에 관한 차이 검증 결과, 외모+옷+인기, 폭력+왕따+성, 흡연 등의 하위영역에서는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여가선용+취미생활, 인터넷, 음주 등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풍토에 관한 차이검증에서 외모+옷+인기, 폭력+왕따+성, 음주+흡연 등의 하위영역에서는 $p=0.05$ 수준 내지는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여가선용+취미생활, 인터넷 등의 하위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청소년들의 학년(연령)에 따른 사회적 풍토에 관한 차이검증에서 외모+옷+인기, 여가선용+취미생활 등의 하위영역에서는 각각 $p=0.001$ 수준 내지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으나, 인터넷, 폭력+왕따+성 음주+흡연 등의 하위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도시 청소년들이 농촌 청소년들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으나 청소년의 사회적 풍토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하위영역, 즉 외모+옷+인기, 여가선용+취미생활, 인터넷, 폭력+왕따+성 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음주를 경험한 경우에서도 도시 청소년들(77.6%)이 농촌지역 청소년들(74.9%)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흡연을 경험한 경우에 있어서도 도시 청소년들이 34.4%의 흡연 유경험자로 밝혀진 반면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경우는 28%로 나타나 도시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농촌지역 청소년들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학교풍토에 따른 청소년들의 문화에 관한 차이검증 결과, 외모+옷+인기의 경우 도시 여고, 농촌 공학, 도시 남고 순으로 인식도가 높았으며,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의 경우는 도시 여고, 도시 남고, 농촌 공학 순으로 나타나 도시 여고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도를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인터넷, 폭력+왕따+성 및 음주와 흡연 등의 하위영역에서의 인식도는 도시 남고, 농촌 공학, 도시 여고 순으로 밝혀져 꼭 대조를 이루었다.

셋째,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풍토에 관한 차이검증에서 외모+옷+인기의 경우에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진 반면, 폭력+왕따+성 및 음주와 흡연 등의 하위영역에서의 인식도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가선용과 취미생활 그리고 인터넷의 경우도 미미하나마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인식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들의 학년(연령)에 따른 청소년들의 사회적 풍토에 관한 차이검증 결과, 외모+옷+인기, 여가선용+취미생활, 음주+흡연 등의 하위영역의 경

우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인식도가 높았으며, 인터넷의 겨우는 2학년이 그리고 폭력+왕따+성의 경우는 1학년이 타 학년에 비하여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 문헌

1. 강대근. 1984.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환경”. 청년연구 제7집.
2. 고성혜 등. 1997. 청소년 문제행동의 이해와 지도. 한국청소년개발원.
3. 구병두 외. 1994.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적 풍토에 관 연구”. 건국대학교부설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제7호.
4. 김봉소. 1985. “학업청소년 성취지향과 교육환경”. 청년연구 제8집.
5. 김억환. 1995. 신교육사회학입문. 서울: 박영사.
6. 방희덕. 1984. “청소년의 복지적 환경”. 청년연구 제7집.
7. 안순덕 외. 1985. “한국소년비행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5.
8. 양춘. 1985. “한국사회와 청소년의 자아실현”. 서울: 형설출판사.
9. 이윤수 역. 1981. 학교와 지역사회. 서울: 형설출판사.
10. 이춘재 외. 1984.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1. 주왕기 등. 1982. “한국의 약물남용실태: 한국과 미국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시태 조사비교”. 청소년비행연구, 강원대학교 청소년비행연구소.
12. 최기서. 1989.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한완상. 1973. 현대사회와 청년문화. 서울: 법문사.
14. 한국청소년개발원. 1991. 청소년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서원.
15. 함종완. 1982. 청소년. 서울: 상조사.
16. 동아일보. 1997. “여중생 100명 중 4명 흡연”. 8월 26일자.

17. Adelson, J., 1968. "The myths of adolescence: a polemic". a paper read at the meeting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18.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 Berger, B. M., 1963. "Adolescence and beyond". Social Problems.
20. Coleman, J. S., 1961. The adolescent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21. Elkin, E., & Westley, W. A., 1955. "The myths of adolescence cultur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 Erikson, E. H., 1968.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Co.
23. Friedenberg, E. Z., 1959. The vanishing adolescence. New York: Dell Pub. Co..
24. Hurlock, E. B., 1974. Chil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25. Keniston, K., 1967. "The sources of student dissent". Journal of Social Issues.
26. Parsons, T., 1954. "Age and sex in the social structure of the united states", in W. E. Martin and C. B. Stendler(eds.). Reading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Harcourt.
27. Schwarz, G., & Merten, D., 1967. "The language of adolescence: An anthropological approach to the youth cultur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